

# 민생·경제 FIRST 퍼스트

VOL.1 2024.11

## 정책포커스

# 원전 생태계 복원

### 한국이 이끄는 '원전 르네상스'

- 지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 원전
- 원전은 미래산업의 필수조건
- 체코에서 온 낭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원전
- '1호 영업사원'의 원전 세일즈
- 원전이 곧 민생
- 되살아난 원전 생태계, 활짝 열린 기회의 문

### 한눈에 보는 정책이야기



#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더 높이 뛰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국정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발전이 없다면 어떤 이념도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분야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민생안정으로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민생·경제 퍼스트’는 이런 선순환을 위해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 반 걸어온 길과 앞으로 2년 반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대국민 보고서입니다.

● 첫 보고서의 테마는 ‘원전 생태계 복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올 7월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24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원전 수주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다른 산업 분야로 파급효과가 지속되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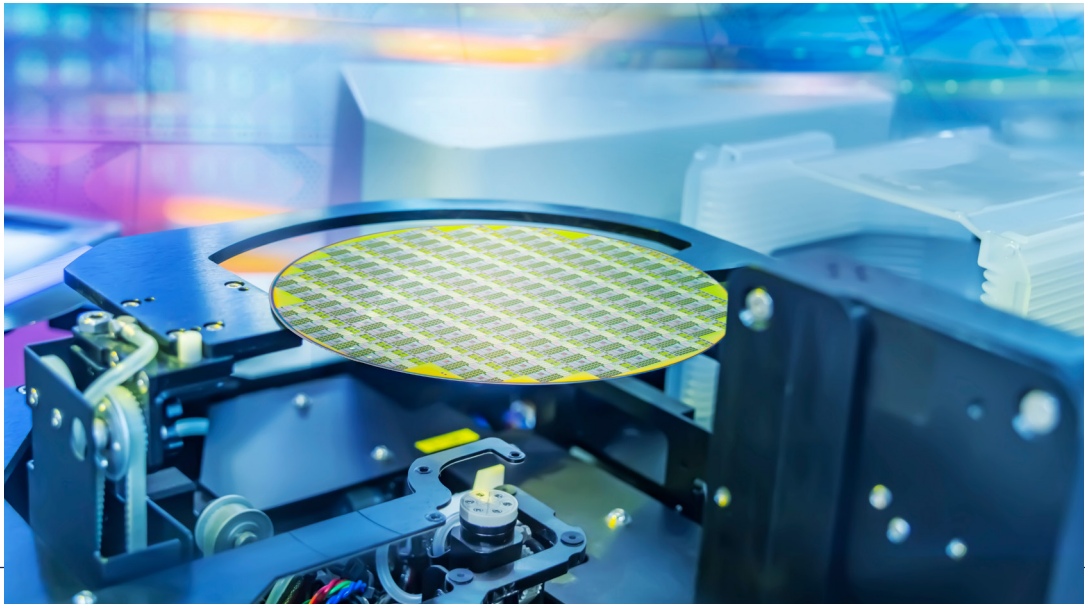
● 앞으로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며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겠습니다. 우선 올 10월 착공식을 개최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규 원전건설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 10기에 대해 안전성 보장을 전제로 기간을 연장해 ‘계속운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속도를 내 2028년까지 혁신형 SMR(i-SMR)을 완성하겠습니다.

● 본격적으로 성장엔진에 시동을 건 우리 원전 기업은 이제 UAE와 체코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 길이 막히지 않도록 장애물을 치우는 것은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한국 경제가 더 높이 뛰고 국민 모두가 그 과실을 누리도록 묵묵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원전은 미래산업의 필수조건



원전은 미래산업의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전 세계의 산업구조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에 약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에 원전 생태계 복원은 필수불가결의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세계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원자력협회 등에 따르면 향후 15년 이내 계획된 원전의 시장 규모는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15년 이내 계획된  
원전 시장 규모



1,000조 원

# 체코에서 온 낭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원전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를 선정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인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24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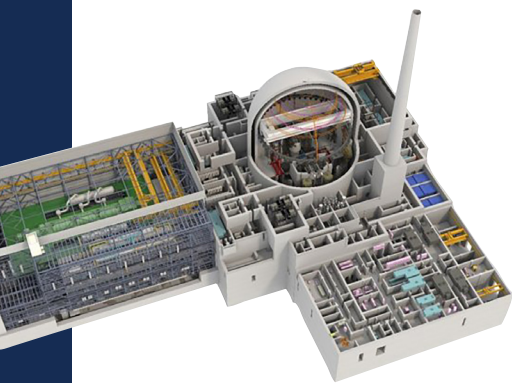
이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 준 것은 물론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 원전 강대국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24** 조원

# ‘1호 영업사원’의 원전 세일즈



**체코 맞춤형  
한국형 원자로**

팀코리아는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달성’과 함께 **‘원전 강국 코리아’**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면 한국형 원자로 ‘APR1400’ 브로슈어를 꼭 챙겨 나섭니다. 각국 정상을 만나 ‘APR1400’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월에는 체코 국민 방문에 나섰습니다. 내년 3월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최종 계약 성사 및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 10월에는 필리핀을 방문, 38년간 가동이 중단된 필리핀 원전의 재개 타당성 조사를 맡아 동남아시아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는 **제3, 제4 원전** 수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 원전이 곧 민생



경제적 효과가 막대한 

## 민생직결 산업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8조 7,000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 등 윤석열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는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한 미래 중추 산업인 AI, 반도체, 전기차 시장도 역시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원전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가 막대한 **민생 직결 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산업을 보유한 대한민국이기에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로 그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되살아난 원전 생태계, 활짝 열린 기회의 문



세계 각국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속속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디지털 전환 등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탈(脫)탈원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세 번째가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지금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을 반도체 같은 국가대표 수출 상품으로 키운 우리나라에게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빠르게 도래하는 친원전 시대, 대한민국이 여는 **원전 르네상스**는 새로운 신화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 脫탈원전



# 2022

- 22. 6. 22 925억 원 규모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등 발표
- 22. 7. 5 2030년 원전 비중 30%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 22. 7. 27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  
\* 국정과제-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22. 8. 18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
- 22. 8. 25 3조 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 <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개요 >

사업 내용	기자재 공급, 터빈건설 시공 등
사업비	3조 원 규모
사업기간	2023년 8월~2029년

“원전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 22. 9. 5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개최
- 22. 11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입찰 제안서 제출
- 22. 12. 7 국내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

# 2023

- 23. 1. 1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2~2036) 확정
- 23. 3. 29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공식 체결
- 23. 6. 27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수주

# 2024

- 24. 2. 22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뛰는 원전산업' 개최
- 24. 3. 22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태스크포스(TF) 개최
- 24. 4. 5 국내 28번째 원전 신한울 2호기 준공
- 24. 4. 29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입찰 제안서 수정본 제출
- 24. 7. 17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4. 9. 12 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3·4호기 건설안 허가
- 24. 9. 19~22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9월 21일 페트르 피알라 총리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 < 원전 생태계 원전 복원 방안 요약 >

원전 일감 · 2024년 3조 3000억 원의 원전 일감 공급  
·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신금 특례 적용

금융 지원 · 2024년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프로그램 공급  
· 1000억 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신설  
·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 추진

투자 확대 · 원전 분야 세액공제 대폭 확대

R&D 혁신 · 5년간 4조 원 투자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4세대 원전 등 연구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원전 협력을 희망합니다.” (2023년 뉴델리 G20 정상회의 발언문, 2023.09.10)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3.09.20)

## 대통령이 말하는 K-원전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네 번째,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모두 발언, 2024.02.22)

“지금 전 세계에서 계획 중인 원전이 100개가 넘고, 1,000조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첨단 산업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의 달성, 그리고 에너지안보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원전 확대가 일석삼조의 해답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2024.09.20)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탄소중립까지 달성하려면,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2024.10.07)

한눈에 보는 정책이야기



# 한눈에 보는 정책이야기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보고  
NOVEMBER 2024



## 한·아세안, 최고 단계 파트너십으로 격상

한국과 아세안은 10월 10일(현지시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 2010년 한·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의 격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AI 제조업 분야' 적극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 주룽 혁신지구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결합한 자율 제조가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확산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마련 '김장 부담' 덜다

정부는 국민의 김장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배추 계약재배물량 10% 이상 확대, 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지원 등의 대책 시행으로 배추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김장 성수기에는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해외자금 75조 유입 기대”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확신과 신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5조원 규모의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에 유입될 전망으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고 외환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WGBI 편입국 현황

북미(3)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15)	영국, 프랑스, 독일...포르투갈
아시아 등(8)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한국(2024년 10월 편입결정)



## 제주 도약위한 세 가지 비전 제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위해 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열린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 등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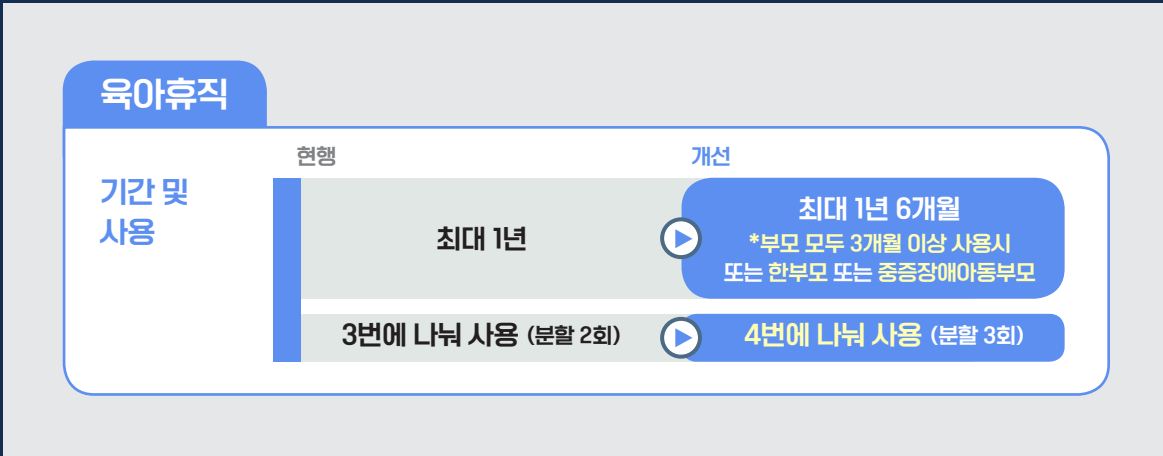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올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한다.



## 스타트업 혁신 기술 지킨다

스타트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는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침해방향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이다.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라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